

# 한 국 세 무 사 회

☎ 06660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3동 1497-16) / 홈페이지 <http://www.kacpta.or.kr>  
전화 521-9451~3 / 팩스 597-2945 업무지원팀 팀장 : 조 지 영 담당 : 최 지 훈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창규입니다.

회원여러분께 소통의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회원 자유게시판을 부활시켰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제(7.6) 백운찬 전회장이 임명한 김광철 전 부회장은 저의 회장당선은 무효이므로 자신이 한국세무사회장 직무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에게 회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실을 백운찬 집행부의 임원들과 최원두 전 선관위원장과 전 선관위원들이 점거하여 집단행동으로 저의 회장직무수행을 방해 하였습니다.

심지어 전 집행부 임원중 이(某) 임원은 어제밤 11시가 넘은 심야에 세무사회관에 와서 경비상태를 촬영하며 엿보다 저에게 들키자 도망갔습니다.

이는 세무사회관의 경비가 부실하면 백운찬 집행부 임원들이 불시에 세무사회관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는 백운찬 집행부 임원들과 최원두 전 선관위원장과 전 선관위원들의 세무사회관 점거 시도로 인하여 회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할일이 태산같이 많은 신임 집행부는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집단행동으로 세무사회관을 점거하려는 불순한 의도와 세무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회원여러분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백운찬 집행부가 회원들의 입을 막기위해 폐쇄하였던 회원 자유게시판을 회장에 취임 즉시 부활 시켰으니 회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 것이며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실천할 것입니다. 제가 회원님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7.

한 국 세 무 사 회 회 장 이 창 규

